

고구려 왕후 우씨 서사에 나타난 ‘주체되기’와 리더십의 문제

정경민*

— <차 례> —

1. 서론
2. 서사에서 드러난 왕후 우씨의 성격
 - 1) 권력 유지에 대한 의지
 - 2) 애정 독점에의 욕망
 - 3) 자율적 삶의 지향
3. 왕후 우씨의 리더십 발현 양상 및 특징
 - 1) 유연한 상황 대처와 주도적 대인관계 형성
 - 2) 명료한 자기 인식과 독립적 주체 형성
4. 왕후 우씨의 ‘주체되기’와 리더십의 의의와 한계
5. 결론

〈국문초록〉

고구려 왕후 우씨는 2대에 걸쳐 왕후의 지위를 유지하고, 왕태후로 생을 마친 여성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서술들은 역사적 기록일 뿐만 아니라 서사 작품으로서의 면모 또한 갖추고 있으므로, 본고는 왕후 우씨 이야기를 하나의 서사텍스트로 보고 우씨를 개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 인물의 일례로 분석해 보았다.

왕후 우씨는 권력 유지, 애정 독점, 자율적 삶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항상 명료하게 인식함으로써 독립적인 주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체되기’는 왕후 우씨의 리더십의 바탕이 되었다.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조교수

왕후 우씨에 대한 후대의 역사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우씨의 파격적인 일련의 행위는 운명과 상황을 돌파하는 주체적 행위자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또 흔히 고전 서사에서 여성 인물의 리더십을 논의할 때 모성적 특질에 기반을 둔 리더십 방식이 추출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여성 리더십의 외연을 확대하는 일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동체를 위한 가치의 제시라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과연 그녀가 보여주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하겠다.

주제어 고구려 왕후 우씨, 여성 리더십, 주체되기, 권력, 욕망, 자율적 삶

1. 서론

고구려 왕후 우씨는 고구려 9대왕인 고국천왕과 10대 산상왕 등 2대에 걸쳐 왕후의 지위를 유지하고, 11대 동천왕 때 왕태후로 생을 마친 여성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그녀의 일화들이 전하는데¹⁾, 본기(本紀)는 원래 왕들의 사적(史蹟)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산상왕조를 중심으로 왕후 우씨를 비롯하여 그녀와 주변 인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사건, 각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묘사, 그리고 인물들의 심적 동향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왕후 우씨 이야기가 역사적 기록일 뿐만 아니라 서사 작품으로서의 면모 또한 갖추고 있음을 드러낸다.²⁾ 그

1) 『삼국사기』 권제16 고구려본기 제4 고국천왕조, 산상왕조와 권제17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조 본고에서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 책을 따른다.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1996.

2) 이러한 기술의 특성 때문에 왕후 우씨의 이야기를 역사적 인물의 기록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서사문학이라고 전제하는 문학적 연구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관련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먼저 정상균은 왕후 우씨를 한국 서사문학사상 최고의 여걸로 규정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남성 인물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우씨의 행적에

런데 그동안 왕후 우씨 서사가 포함된, 고국천왕부터 동천왕 대에 이르는 기술에 대해서는 주로 고구려 초기 왕권 강화와 관련된 정치 동향³⁾, 왕위 계승의 문제⁴⁾, 취수훈 풍습이나 사건⁵⁾과 관련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고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점을 주지하되 왕후 우씨 이야기를 하나의 서사텍스트로 보고⁶⁾ 우씨를 개성적인 여성 인물의 일례로 분

대해 대모(大母) 아키타임에 상응한다고 하였다.(정상균, 『<산상왕 본기>의 서사문학적 의미 연구』, 『연민학지』 8, 연민학회, 2000.) 또, 박대복은 우씨를 여성영웅으로 보고 우씨 서사의 근간 화소가 전승되어 여성영웅소설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문헌설화 <온달>, <설죽화>, 여성영웅소설 <박씨전>, <설저전>, <이현경전> 등과 비교하여 문학사적 변이양상을 살펴보았다.(박대복, 『고구려 <우씨>의 여성영웅적 성격과 변이양상 연구-『삼국사기』, 『산상왕본기』의 우씨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6, 중앙어문학회, 2013.)

- 3) 왕후 우씨와 관련한 당시 고구려의 정치동향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기백, 『고구려 왕비죽고』, 『진단학보』 20, 진단학회, 1959; 윤상열, 『고구려 왕후 우씨에 대하여』, 『역사와 실학』 32, 역사실학회, 2007; 최일례, 『산상왕의 혼인과 고구려의 정치-나부세력의 동향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58, 호남사학회, 2015.
- 4)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광수, 『고구려 초기의 왕위계승문제』, 『한국사연구』 55, 한국사연구회, 1986; 노태돈, 『고구려 초기 왕계에 대한 일고찰』, 『이기백 선생 고회기념논총(상)』, 1994; 박노석, 『고구려 초기 왕위 계승의 원리』, 『대동사학』 5, 대동사학회, 2005 등이 있다.
- 5) 왕후 우씨와 취수훈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축적되었다. 대표적인 논의로 노태돈, 『고구려 초기의 취수훈에 관한 일고찰』, 『김철준 박사 화갑기념사학논집』, 1983; 전미희, 『고구려 초기의 왕실교제와 5부』, 『박영석 박사 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상)』, 1992; 김수태, 『2세기말 3세기대 고구려의 왕실혼인-취수훈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8, 서경문화사, 2005; 엄광용, 『고구려 산상왕의 '취수훈 사건』, 『사학지』 38, 단국사학회, 2006; 신경득, 『고구려 초기 형수와의 혼인이 빚어낸 갈등 양상』, 『남명학연구』 26,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6) 자크 랑시에르는 역사를 기술하는 것, 특히 전기(傳記) 양식과 문학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역사를 쓰는 것, 그것은 어떤 결정 불가능성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중략) 역사를 쓰는 것은 또한 몇몇 부분들에서 그 사실적 근거를 결정할 수 없는 텍스트들과 관계맺는 것이다. (중략) 전기작업은 현실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의 어떤 판별 불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기를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디에 위치시키며 어디에 경계선을 확정할 것인가를 결정

석해 보고자 한다.

우씨는 고국천왕의 전대왕인 신대왕 때는 최고 권력집단인 연나부 가문의 딸이었고, 고국천왕이 즉위하자마자 혼인하여 그의 재위 18년⁷⁾, 산상왕 재위 30년⁸⁾ 동안은 고구려의 왕후였으며, 죽을 때까지 동천왕 재위 7여 년 간 왕태후였다. 이는 우씨가 평생 권력자로 살았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우씨가 평생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 단지 친정 가문의 원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왕후 우씨의 강한 면모들이 서사에서 발견된다. 형제지간인 두 왕의 왕후였다는 사실 자체도 역사상 유일한 사례거리니와 취수훈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상은 우씨 자신이 왕위계승자를 결정했다는 점, 후사가 없었음에도 왕의 자식을 임신한 여성의 존재를 알고 단호하게 죽이려 한 점, 죽음을 앞두고 본 남편과 합장하는 취수훈의 관행을 거부하고 후부인 산상왕 곁에 묻어달라고 한 점 등은 우씨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항상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왕후 우씨가 자신에게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역할을 수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기를 부정함으로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들 자체에서 제거한다고 믿었던 허구를 사실들에게 부여하는 이치 속으로 빠지기 때문이다. 전기의 모호성은 어떤 학문에 내재된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모호성은 역사학을 기능케 한 글쓰기 체제, 즉 문학에서 비롯된다.” 즉 역사의 기술, 특히 인물의 일생 이야기인 전기양식은 글쓰기 과정을 통해 문학과 결합된다는 것이다. 자크 랑시에르 지음,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11, 271~272쪽.

또한 조태영은 전통적인 역사서술은 이야기를 기본적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고(조태영, 이동근, 『역사이야기 서술의 두 형식』,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291~292쪽.), 박대복은 바로 그 점에서 역사와 문학은 공통성을 지닌다고 하였다(박대복, 『고구려 <우씨>의 여성영웅적 성격과 변이양상 연구-『삼국사기』, 『산상왕본기』의 우씨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6, 중앙어문학회, 2013, 205쪽).

7) 179-197년

8) 197-227년

용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지배하고자 했음에 주목하고, 서사에서 드러난 구체적 행위를 통해 그녀의 성격을 밝혀⁹⁾, 이러한 성격들이 우씨의 욕망을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대(타인)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끌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와 타인을 포괄하여 대상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리더십이라고 명명할 때, 궁극적으로 본고는 우씨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내적 동력이 주체성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여타 고전 서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권력 지향적 여성 우씨가 여성 리더십의 외연을 확장하는 하나의 인물 사례로 성립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서사에서 드러난 왕후 우씨의 성격

이 장에서는 왕후 우씨의 행위를 통해 그녀의 성격과 기질, 가치관 등의 특징적 면모를 살피고자 한다. 우씨는 왕후 지위를 지켜냄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왕에게 다른 여성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 또, 관행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고자 하였다. 고국천왕, 산상왕, 동천왕이 고구려가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고 왕권을 확립해 중앙집권화를 이루어가던 시기의 왕들임을 고려할 때 왕후의 막강한 배후인 친정 가문은 왕에게는 정치적으로 견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씨는 왕후로서 권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각각의 왕들과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왕실의 역학관계 안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9) 본고에서는 '성격'이 개인이 지닌 특유의 품성이나 기질 등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규정한다.

욕망을 드러내어 현실화할 수 있었던 연유를 우씨 내면에서 찾고자 한다.

1) 권력 유지에 대한 의지

고국천왕의 왕후 우씨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서술로 등장한다.

2년 2월에 비 우씨를 세워 왕후를 삼으니 왕후는 제나부 우소의 딸이다.¹⁰⁾

고국천왕이 즉위한 이듬해 왕후가 된 우씨는 “비 우씨(妃于氏)”의 표현으로 보아 이전에 이미 세자비 신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¹¹⁾ 우씨 왕후의 가문인 연나부는 고국천왕의 아버지인 신대왕 때부터 권력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였는데 이에 우씨는 혼인 전부터 세자비로 지명되었다. 이로써 우씨가 명실상부한 당시 최고 권력집단의 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국천왕조에서는 이후 왕후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고국천왕 12년에 우씨의 친척인 좌가려와 어비류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고국천왕이 이들을 평정한 후에도 우씨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볼 때 우씨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¹²⁾ 특히 고국천왕은 반란 평정 후 자신의 ‘명석하지 못함’과 ‘충애하고 아낌’에서 이런 사태가 비롯되었다고 자기반성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10) 二年, 春二月, 立妃于氏爲王后 后提那部于素之女也. (『삼국사기』 권제16 고구려 본기 제4 고국천왕조)

11) 이에 대해 신경득은 고국천왕이 왕이 되기 전에 우씨가 이미 신대왕(고국천왕의 아버지)의 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씨를 세 명의 왕과 혼인한 왕비라고 하였다. 신경득, 앞의 논문, 489~494쪽.

12) 이 사건 이후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등용하고 본격적으로 귀족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정치적 형국에서 특히 반란을 주도한 왕후의 친정 가문이 속한 연나부 세력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가 ‘관서(寬恕)와 위맹(威猛)이 알맞은’ 성품이었음을 상기할 때 왕후에 대해서는 주로 관대했음을 알 수 있다.¹³⁾ 또 고국천왕과 우씨 사이에 후사가 없었음에도 고국천왕이 소후를 들이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우씨가 고국천왕에 미치는 힘이 정치적 권력 뿐 아니라 인간관계, 부부관계,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발휘되는 성격의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우씨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고국천왕의 죽음 이후의 행적에서 본격적으로 분출된다.

처음 고국천왕이 돌아갔을 때 왕후 우씨는 상사(喪事)를 비밀에 부치어 발상(發喪)치 않고 밤에 왕제(王弟) 발기(發岐)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왕이 후사가 없으니 그대가 계승하라” 하였다. 발기는 왕의 상사(喪事)를 모르고 대답하기를, “하늘의 역수(曆數)는 (따로) 돌아가는 데가 있으니 가벼이 의논할 수 없으며, 하물며 부인으로 밤에 나와 다니니 어찌 예(禮)라 할 수 있습니까” 하였다. 후(后)가 부끄러이 여겨 곧 (그 아우) 연우(延優:魏志의 伊夷模)의 집으로 가니 우(優)는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문에서 맞이하여 자리에 들어와 주연(酒宴)을 베풀었다. 후(后)가 말하기를, “대왕이 돌아가고 아들이 없으니 발기(發岐)가 장(長:어른)이 되어 의당 뒤를 이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나더러) 이심(異心)이 있다 하고 포만무례(暴慢無禮)하므로 (지금) 숙(叔:아제)을 보러 온 것이오” 하였다. 이에 연우(延優)는 예(禮)를 더하여 친히 칼을 잡고 고기를 베다가 잘못 그의 손가락을 다쳤다. 후(后)가 허리띠를 풀어 그의 다친 손가락을 싸매 주었다. 후(后)가 환궁하려 할 때

13) 이에 대해 정상균은 고국천왕의 관서와 총애에는 우씨의 미모와 지략이 뒷받침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후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천왕이 왕후 이외의 여자에게 아들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우씨가 힘(지략과 미모)으로 고국천왕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으며, 그녀의 뜻대로 왕을 조종하는 관계였다고 하였다. 우씨가 고국천왕을 미모와 지략으로 장악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관계의 주도권이 우씨에게 있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정상균, 앞의 논문, 31~35쪽.

연우(延優)에게 말하기를, “밤이 깊어 무슨 불의(不意)의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그대는 나를 궁(宮)에까지 바래다 주시오” 하였다. 연우가 그리하였더니 왕후가 그의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질명(質明:날이 셀 때)에 거짓 선왕(先王:故國川王)의 유명(遺命)이라 꾸며 군신(群臣)으로 하여금 연우(延優)를 세워 왕을 삼게 하였다.¹⁴⁾

고국천왕이 후사를 남기지 않은 채 죽자 우씨는 왕의 동생들을 차례로 찾았다. 우씨는 왕이자 남편인 고국천왕의 죽음 앞에서 감정적 동요를 보이기보다 자신의 위상이 격하될 위기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우씨는 왕위 계승 서열상 우위의 받기 대신 연우를 선택하여 왕(산상왕)으로 삼고 연우와 다시 혼인함으로써 왕후의 지위를 보전했다. 이는 유목문화의 잔재라 할 수 있는 취수혼의 형식을 통해 가능했는데, 일반적으로 유목사회에서 행해졌던 취수혼이 경제적 거래 관계였다면 고구려 산상왕의 취수혼 사건은 권력의 거래 관계¹⁵⁾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게다가 가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남성 측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 여성인 왕후의 계략으로 활용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산상왕의 취수혼은 결국 우씨가 자신에게 가장 우호적인 시동생을 선별해 권력 유지의 장치로 삼음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는 우씨가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새로운 권력 투쟁과 창출에서 우위를 선점할

14) 初, 故國川王之薨也, 王后于氏秘不發喪, 夜往王弟發歧宅, 曰, 王無後, 子宜嗣之, 發歧不知王薨, 對曰, 天之曆數有所歸, 不可輕議, 況婦人而夜行, 豈禮云乎, 后慙, 便往延優之宅, 延優起衣冠, 迎門入座宴飲, 王后曰, 大王薨, 無子, 發歧作長當嗣, 而謂妾有異心, 暴慢無禮, 是以見叔, 於是, 延優加禮, 親自操刀割肉, 誤傷其指, 后解裙帶, 裹其傷指, 將歸, 謂延優曰, 夜深恐有不虞, 子其送我至宮, 延優從之, 王后執手入宮, 至翌日質明, 矯先王命, 令群臣, 立延優爲王, (『삼국사기』 권제16 고구려본기 제4 산상왕조)

15) 엄광용, 앞의 논문, 9쪽.

것을 가장 우선시할 정도로 권력 유지를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우씨는 산상왕과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없었다. 산상왕 사후에 소후인 주통촌녀의 소생이 동천왕으로 즉위하였는데, 우씨는 친자가 아닌 어린 동천왕을 자극하고 시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복종심을 확인하였다.

왕의 성품은 관인(寬仁)하니, 삼후(三后:于氏)가 그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고자 하여 왕의 출유(出遊)를 기다렸다가 가만히 사람을 시켜 왕의 노마(路馬:王馬)의 갈기를 잘랐다. 왕이 돌아와 (보고) "말이 갈기가 없으니 가련하다" 하였다. 또 왕후가 시자(侍者)를 시켜 수라상(밥상)을 드릴 때에 일 부러 국을 왕의 옷에 엇지르게 하였으나 (왕은) 역시 노하지 아니하였다.¹⁶⁾

왕후는 동천왕을 감정적으로 도발하면서도 자신을 계속 섬기게끔 하여 힘의 우열관계를 주지시켰고, 그 결과 동천왕은 즉위 다음해에 우씨를 왕태후로 삼았다. 이로써 우씨는 약 50년에 이르는 왕후 지위에 이어 죽을 때까지 왕태후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동천왕이 왕후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왕후의 세력이 왕실을 장악하고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동천왕의 생모인 소후의 경우 성씨조차 기록에 남지 않은 것을 볼 때 왕후 우씨의 권세가 소후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음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우씨는 새롭게 즉위한 어린 왕의 공식적인 어머니 지위를 이용해 왕태후로 군림하게 된다.

2) 애정 독점에의 욕망

앞서 고국천왕은 재위 기간 동안 후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후를 들

16) 王性寬仁, 王后欲試王心, 候王出遊, 使人截王路馬鬣, 王還曰, 馬無鬣可憐, 又令侍者進食時, 陽覆羹於王衣, 亦不怒 (『삼국사기』 권제17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조)

이지 않았음을 언급했는데, 서사에서는 그 뚜렷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산상왕의 소후 문제에 대응하는 우씨의 행위를 살펴보면 대략의 사정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왕은 본시 우씨로 인하여 대위(大位)를 얻게 되었으므로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우씨를 세워 왕후를 삼았다.¹⁷⁾

산상왕은 왕위 계승 서열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왕후 우씨의 도움으로 형 받기 대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에 분노한 받기가 군사로 왕궁을 에워싸고 왕위 찬탈의 죄를 물으며 “속히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처자를 죽일 것이다”라고 소리쳤다는 데서 연우가 이미 기혼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후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산상왕이 후사를 위해 소후를 들인 것을 보면 왕후 우씨와 궁으로 들어갈 때 이미 연우는 왕후와의 모종의 합의로 처자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산상왕은 즉위 7년에 이르도록 왕후와의 사이에 후사가 없자 산천에 다니며 기도를 하는데 소후에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천신의 응답을 듣게 된다. 산상왕은 이에 여러 신하들에게 소후가 없음을 근심하는데, 이는 산상왕이 소후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후로도 산상왕은 수년간 소후를 얻을 수 없었고, 이는 왕위를 계승할 자식이 없을지라도 소후를 용인할 수 없었던 왕후의 뜻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다 산상왕은 주동춘의 처녀와 인연을 맺게 되고 처녀는 임신한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왕후의 대응이 매우 즉각적이고도 단호하다.

17) 王本因于氏得位, 不復更娶, 立于氏爲后 (『삼국사기』 권제16 고구려본기 제4 산상왕조)

12년 11월에 교시(郊豕:祭天用의 돼지)가 놓여 달아났다. 말은 官吏(관리)가 그 뒤를 쫓아 주통촌(酒桶村)에 이르렀는데, (돼지가) 이리저리 달아나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그 때) 나이 20세쯤 된 여자 한 사람이 곱고 어여쁜 얼굴로 웃으며 앞질러 잡으니 쫓아가던 자가 (비로소) 얻게 되었다. 왕이 듣고 이상히 여겨 그 여자를 보려고 미행(微行:暗行)하여 밤에 그의 집에 가서 시인(侍人:왕의 近侍人)을 시켜 달래보았다. 그 집에서는 왕이 오신 것을 알고 감히 거역치 못하였다. 왕이 방으로 들어가 그 여자를 불러보고 가까이 하려 하니 여자가 말하기를, “대왕의 명을 감히 어길 수는 없습니다. 마는 만일 아이가 생긴다면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므로 왕이 허락하였다. 병야(丙夜:밤 12시)에 이르러 왕이 일어나 환궁(還宮)하였다.

13년 3월에 왕후가 왕이 酒桶村(주통촌)의 여자에게 거두는 것을 알고 투기(妬忌)하여 가만히 군사를 보내어 죽이려 하니, 그 여자가 들어서 알고 男服(남복)을 입고 도망하여 달아났는데 쫓는 자가 해치려 하였다. 여자가 묻기를, “너희가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 함은 왕의 명령이나 왕후의 명령이냐. 지금 나의 뱃속에는 아이가 들어 있으니 이는 실로 왕의 유체(遺體)이다. 내 몸을 죽임은 가하거니와 왕자까지도 또한 죽이려 하느냐” 하였다. 군사가 감히 그를 해치지 못하고 돌아와 여자의 하던 말을 고하니 왕후가 노하여 꼭 그를 죽이려 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왕이 듣고 그 여자의 집에 가서 묻기를, “네가 지금 아이를 배었다 하니 이것이 누구의 아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침이 평생에 형제와도 동석치 않거늘 하물며 남자를 가까이하겠습니까. 지금 복중(腹中)에 있는 아이는 실로 대왕의 유체(遺體)올시다” 하였다. 왕이 (그 여자에게) 위로와 증여(贈與)를 매우 후히 하고 돌아와 왕후에게 알리니, 왕후도 마침내 감히 해치지 못하였다.¹⁸⁾

18) 十二年，冬十一月，郊豕逸，掌者追之，至酒桶村，躑躅不能捉，有一女子年二十許，色美而艷，笑而前執之，然後追者得之，王聞而異之，欲見其女，微行夜至女家，使侍人說之，其家知王來，不敢拒，王入室，召其女，欲御之，女告曰，大王之命，不敢避，若幸而有子，願不見遺，王諾之，至丙夜王起，還宮。

十三年，春三月，王后知王幸酒桶村女，妬之，陰遣兵士殺之，其女聞知，衣男服逃走，追及欲害之，其女問曰，爾等今來殺我，王命乎，王后命乎，今妾腹有子，實

왕후 우씨는 왕이 다른 여자에게 왕래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투기하여” 직접 군사를 보내 살해하고자 하였다. 또 군사를 통해 여성의 임신 사실을 듣고는 “노하여” 반드시 죽이고자 하였다. 이처럼 왕에게 다른 여성이 생긴 데 대한 우씨의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공격은 산상왕에 대한 우씨의 태도 전반을 감안할 때 애정관계의 변화, 즉 자신에 대한 왕의 애정을 독점할 수 없다는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발기 대신 연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씨의 우호적이면서도 여성적인 모습이나 사후 산상왕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등의 행적으로 미루어 연우에 대한 우씨의 태도에는 권력관계와 애정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¹⁹⁾ 산상왕이 처녀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한 이후에야 왕후는 할 수 없이 주통춘녀에 대한 살해 공격을 멈추는데, 이는 결국 산상왕이 주통춘녀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을 우씨에게 이양하고 산상왕의 사후에도 우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모종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우씨는 왕후라는 정치적 입지를 활용해 권력을 휘두르면서 한편으로는 애정관계에 있어 경쟁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상황을 제어하였다. 자신의 불모성에 위축되거나 어떻게든 후사를 두어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것이 왕후의 소임이라는 인식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왕이자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서 권력과 함께 애정도 독점하고자 하는 우씨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王之遺體也，殺妾身可也，亦殺王子乎，兵士不敢害，來以女所言，告之，王后怒，必欲殺之，而未果，王聞之，乃復幸女家，問曰，汝今有娠，是誰之子，對曰，妾平生不與兄弟同席，況敢近異姓男子乎，今在腹之子，實大王之遺體也，王慰藉贈與甚厚，乃還告王后，竟不敢害。(『삼국사기』 권제16 고구려본기 제4 산상왕조)

19)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자율적 삶의 지향

왕후 우씨 서사에는 두 번의 택부(擇夫) 일화가 등장한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고국천왕의 사후 취수혼 과정²⁰⁾에서 왕위 계승의 우선권을 가진 받기 대신 연우를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음을 앞두고 두 남편 중 고국천왕이 아닌 산상왕릉 옆에 묻히겠다고 한 것이다. 첫 번째 택부의 경우에는 자신과 권력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과 이에 대한 친절 세력 연나부와의 사전 교감 등이 적용되었을 정황을 참작하면 우씨의 단독 결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의 경우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내린 결정이라 정치적인 계산이 선행되었다기보다는 우씨의 자유로운 의지가 더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9월에(동천왕 8년) 태후(太后) 우씨가 돌아갔다. 태후가 임종에 유언하기를, "내가 (일찍이) 행실(절개)을 잃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국양(國壤:故國川王)을 지하에서 보랴. 만일 여러 신하가 차마 (나를) 구학(溝壑:구렁텅이)에 버리지 아니하려거든 나를 산상왕릉 곁에 묻어 주기를 바라다" 하였다. 드디어 그의 말과 같이 장사하였다. 무자(巫者:무당)가 말하기를, "국양왕(國壤王)이 나에게 강림(降臨)하여 말하기를, '어제 우씨가 산상에 온 것을 보고 (내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드디어 그와 싸움을 하였는데 물러와 생각하니 안후(顔厚:낮이 뽀뽀하여)하여 차마 나라 사람을 볼 수 없으니 너는 조정

20) 박대복은 우씨와 산상왕의 경우는 '형사취수혼(兄死娶嫂婚)'이라기보다는 '부사취제혼(夫死取弟婚)'이라고 하였다. "우씨와 산상왕의 혼인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고구려의 혼속인 '형사취수혼'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씨와 산상왕의 경우는 다르다. 우씨가 직접 두 시동생 가운데 자신에게 우호적인 '배우자를 선택'하여 등극시키고 왕후가 되었기 때문이다. 시동생이 주도한 혼사가 아니라, 형수가 주도한 혼사라는 것이다. 즉 우씨와 산상왕은 형사취수혼이라기보다, 남편이 죽으니 형수가 시동생을 취하는 '부사취제혼'이라 할 수 있다." 박대복, 앞의 논문, 210쪽.

에 고하여 (무슨) 물건으로 나를 가려 주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므로 능(陵:故國川王) 앞에 소나무를 일곱 겹으로 심었다.²¹⁾

취수혼의 경우 아내는 죽어서 본 남편에게 묻히는 것이 관행이었다. 관행대로라면 우씨는 고국천왕 옆에 묻혀야 했다. 사후 묘지의 위치는 결연의 우선권, 즉 누구와의 관계가 주된 관계이고 누구와의 관계가 부차적인 것인지를 상징한다. 그런데 그녀는 산상왕의 곁에 묻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본 남편인 고국천왕이 아닌 산상왕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공표한 셈이다. 그러면서 “첩실행을 했으니 면목이 없어 차마 고국천왕 옆에는 묻힐 수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왕후 우씨가 산상왕릉을 택한 데 대한 고국천왕의 분노는 왕후의 취수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국천왕은 왕후가 죽어서 산상왕 곁에 놓자 그것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 했다고 하였다. 자신의 곁을 거부하고 동생의 옆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은 아내 없는 왕이 된 것에 대해 백성들 보기가 부끄럽다 여겼다. 즉 당시 거의 사라져가던 풍습이었다고는 하나 왕실을 이어가기 위한 왕후의 취수혼은 용인할 수 있었지만 관습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리도 지키지 않은 왕후를 용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사후 영혼들의 충돌과 갈등, 수치와 분노 등에 대한 서술은 사실성 여부를 떠나 왕후의 선택이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우씨는 명분이나 관습 등 외부에서 주어진 기대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능동적으로 삶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21) 秋九月, 太后于氏薨, 太后臨終遺言曰, 妾失行, 將何面目見國壤於地下, 若群臣不忍擠於溝壑, 則請葬我於山上王陵之側, 遂葬之如其言, 巫者曰, 國壤降於予曰, 昨見于氏歸于山上, 不勝憤恚, 遂與之戰, 退而思之, 顏厚不忍見國人, 爾告於朝, 遮我以物, 是用植松七重於陵前 (『삼국사기』 권제17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조)

이처럼 왕후 우씨는 생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는 행적을 보여준다. 심지어 생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외부세계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누구의 곁에 묻힐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우씨의 선택 기준이 감정적 유대 정도였는지 애정의 밀도였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상대의 충성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본 적 없는 그녀가 한 남성에게 종속되어 선택받기를 기다리며 인생을 살기보다 여러 남성들을 그녀의 뜻대로 조종하고 시험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3. 왕후 우씨의 리더십 발현 양상 및 특징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왕후 우씨의 서사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면서 권력 유지, 애정 독점, 자율적 삶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대상을 이끄는 힘, 즉 대상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리더십이라고 할 때²²⁾ 우씨는 자기 방식으로 리

22) 리더십 이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초기 연구는 리더의 자질, 행동의 특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리더십의 효율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인식 하에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중요시되었고, 최근에는 전통적인 리더십 개념과는 변별되는 변혁적 리더십, 상황중심적 리더십, 감성리더십, 여성리더십 등이 리더십 연구의 키워드가 되었다. 즉 최근에 중시되는 리더십은 지배와 종속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리더십 개념에서 탈피한 이론이라 하겠다. 이처럼 리더십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고 그 구체적인 활용방식이나 적용 대상이 세분화되면서 인문학적 가치와 리더십을 결합하거나 전통적인 사상에서 리더십을 다시 생각하는 등 다양한 통섭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대범 외, 『인문학 리더십코칭』, 강원대학교 출판부, 2010; 남홍석, 『유가와 서번트 리더십』, 동과서, 2014; 윤혜린, 『여성 리더십의 공간과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9; 조형억,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 리더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김세서리아, 「유가 경전에는 찾는 '유교적' 여성주의 리더십」, 『동양철학연구』 69, 동양철학연구회,

더십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우씨의 리더십 방식은 ‘관계 맺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 이는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리더십의 내용과 발현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우씨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리더십을 발현하는 양상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살펴 그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

1) 유연한 상황 대처와 주도적 대인관계 형성

왕후 우씨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상대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의도대로 목표를 달성해 나갔다. 이러한 우씨의 유연한 면모는 고국천왕의 죽음이라는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고국천왕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 왕후 우씨가 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궁을 나와 사후의 왕위 계승 문제를 도모하기까지 비밀리에 진행한 것을 보면 관료들이나 왕족조차 그의 죽음을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왕후는 왕이자 남편의 죽음이라는 돌발 상황에서도 비통해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몰래 궁을 나와 왕위를 계승해야 할 시 동생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우씨는 먼저 왕위 계승 서열이 가장 높은 발기를 찾은 후 그의 동생인 연우를 방문하는데, 이때 두 왕자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먼저 왕후는 첫째 동생 발기를 찾아가 “왕의 후사가 없으니 그대가 뒤를 잇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의 의중을 떠본다. 발기는 “왕위란 하늘이 정하는 것인데 가벼이 의논할 수 없으며, 하물며 부인으로 밤에 나와 다니니 어찌 예(禮)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부인으로

2012 등을 참고하였다.

서의 행실을 문제 삼아 우씨를 꾸짖었다. 이에 우씨는 다시 발기의 동생 연우를 찾았다. 연우는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문에서 맞이하여 자리에 들어와 주연(酒宴)을 베풀었는데 이러한 극진한 대접은 발기와 대조를 이룬다. 연우의 태도에 우씨는 발기에게 당한 일을 털어놓으며 왕의 죽음과 왕위 계승에 대해 상의하러 왔다는 방문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자 연우는 예를 더하여 우씨에게 직접 고기를 찢어주다가 손가락을 다치고, 우씨는 그런 연우를 위해 허리띠를 풀어 상처를 싸매주었다. 또 "밤이 깊어 무슨 불의(不意)의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그대는 나를 궁(宮)에까지 바래다 주시오" 라며 궁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왕후가 그의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갔다는 서술에서 이미 우씨와 연우 사이에는 남녀 사이의 교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발기와 연우에 대한 우씨의 태도에서 주목할 것은 가장 중요한 방문의 목적, 즉 왕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우씨는 발기에게 왕이 서거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왕위 계승에 대해 논했고, 연우에게는 처음부터 왕의 서거 사실을 알리며 발기의 태도에 심기가 편치 않았다는 것까지 털어놓았다. 이는 우씨가 이미 마음으로 왕위 계승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두 왕자를 다시금 확인하는 절차로 방문했음을 보여준다. 우씨는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발판이 되어줄 순종적인 왕위계승자가 누구인지 시험하고자 했을 것인데, 두 왕자의 평소 기질이나 소신, 태도 등을 파악한 후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상황을 이끌었다. 즉 서열상 발기를 먼저 찾지 않을 수 없었으나 평소의 소신과 성품으로 볼 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님을 간파하고 거절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²³⁾ 또, 왕후 우씨의 도움이나 선택 없이도 왕위를 물려받게 될

23) 우씨의 방문과 발기의 거절에 대해 그 내용을 간음으로 본 연구들이 있다. 김수태는 발기가 “예가 아니”라고 한 것은 간음을 뜻한다고 보았다.(김수태, 『2세기말 3세기대

발기와 달리 연우는 혼자서 힘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스스로 왕위를 계승할 서열이 아닌 연우가 왕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씨의 선택과 결단 덕분인 것이다. 이는 우씨가 연우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우를 왕으로 삼을 경우 자신의 입지가 더욱 공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씨는 거절을 유도하고자 발기에게는 왕후로서 공식적인 왕위 계승의 문제만을 의논하였고, 자신을 왕후로 삼아 권력을 나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연우에게는 왕후로서뿐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우씨가 연우를 선택하면서 의도한 것이 권력 뿐 아니라 왕후 지위를 유지하며 애정을 기반으로 한, 보다 밀도 높은 유대관계의 형성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씨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상대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접근하며 주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였다. 한 국가의 왕후이자 왕실의 권력자인 우씨의 행위는 공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적 행위라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녀의 인간관계들이 모두 사적 관계, 즉 가족관계이면서 동시에 공적 관계, 즉 권력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씨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오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씨가 대인관계에 있어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2) 명료한 자기 인식과 독립적 주체 형성

왕후 우씨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욕망의 현실화를 위한 뚜렷한 목

고구려의 왕실혼인-취수혼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8, 한국고대사학회, 2005). 또, 최일레 역시 고국천왕 사후 차기 왕위 계승자인 발기는 왕후와 후사를 논의하거나 반란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우씨가 밤에 몰래 발기에게 접근한 것은 간음과 연결되어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하였다. (최일레, 앞의 논문, 16쪽.)

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행동하였다. 이는 우씨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명료한 자기 인식²⁴⁾은 우씨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동력이 되었다.

왕후 우씨는 서사 전반에서 궁극적으로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 애정에 대한 독점을 권력 행사를 통해 보장받고자 했고, 관습이나 도리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도 힘에 의존했다. 그런데 우씨가 권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녀의 '관계맺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씨의 인간관계는 모두 권력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애초에 막강한 세력이 가문 출신이기에 왕후가 되어 궁에 입성할 수 있었고, 연우 또한 처자를 버리고 자신을 왕후로 맞았다.²⁵⁾ 또 고국천왕의 유지(遺志)를 거것으로 속여 연우를 산상왕으로 세운 정치적 사건에 대해 관료들이나 귀족 세력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단속할 수 있었다.²⁶⁾ 게다가 우씨는 아이를 낳

24) 마리안 N. 루더만, 패트리샤 J. 오롯은 여성리더십의 다섯 가지 테마로 자아명료성, 진실성, 관계형성, 전체성, 주체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리안 N. 루더만, 패트리샤 J. 오롯 지음, 구자숙, 서상태 옮김, 『21C 여성리더십』, 위즈덤아카데미, 2003 참고.

25) “왕은 본시 우씨로 인하여 대위(大位)를 얻게 되었으므로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우씨를 세워 왕후를 삼았다.” (王本因于氏得位, 不復更娶, 立于氏爲后. - 『삼국사기』 권제16 고구려본기 제4 산상왕조)

26) 연우가 왕이 되자 형 발기는 군사를 일으켰는데, 나라 사람들이 발기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우선적 왕위계승의 명분이 있는 발기가 우씨와 연우의 행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은 것은 이미 우씨 세력이 정치적으로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발기는 듣고 크게 노하여 군사로 왕궁을 에워싸며 부르짖어 말하기를, “형이 죽으면 아우에게 돌아가는 것이 예(禮)인데 너는 순차(順次)를 뛰어 왕위를 찬탈(篡奪)하니 큰 죄다. 속히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처자를 죽일 것이다” 하였다. 연우는 3일 동안이나 문문을 닫으니, 나라 사람들도 발기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 (發歧聞之大怒, 以兵圍王宮, 呼曰, 兄死弟及禮也, 汝越次篡奪, 大罪也, 宜速出, 不然則誅及妻孥, 延優閉門三日, 國人又無從發歧者. 『삼국사기』 권제16 고구려본기 제4 산상왕조)

지 못하는 자신의 불모성까지 동천왕의 공식적 어머니가 됨으로써 극복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가족까지 권력을 매개로 구성한 우씨에게는 그 관계에 대한 불안이 잠재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씨는 소후에 대한 살해 공격으로 산상왕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동천왕을 끊임없이 시험함으로써 긴장을 늦추지 못하도록 만들어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섬기도록 하였다. 이처럼 왕후 우씨에게 권력이란 자기 존재의 확인이었다.

우씨는 권력을 창출하고, 행사하고,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녀가 일방적인 운명의 수용자로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왕의 공백을 대비할 준비시간도 없이 맞닥뜨린 고국천왕의 갑작스런 죽음에 우씨가 기민하게 왕위 계승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새로운 왕과 그 세력에 의해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산상왕이 소후를 통해 후사를 얻으려는 시도에 대해 반발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왕의 애정은 물론 왕후로서의 권력도 소후와 나뉘야 했을지 모른다.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씨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평가에 따라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관계에 따른 역할에 함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위하는 주체의 면모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왕후 우씨에게 권력과 욕망, 그리고 주체의 형성은 각각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작용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욕망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권력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타인에 미치는 힘을 권력이라고 하고 자신의 삶을 고양시키는 추동력을 욕망이라 할 때 우씨는 권력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욕망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었다. 이것이 우씨의 리더십 발현 방식이라 하겠다.

4. 왕후 우씨의 '주체되기'와 리더십의 의의와 한계

왕후 우씨에 대한 후대의 역사적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졌음에도 고국천왕의 정치적 판단과 역량에 대해 찬(讚)하는 사론만 실었을 뿐 산상왕의 불법적 즉위와 우씨의 행위에 대해 탓하지 않았다.²⁷⁾ 그러나 이후 조선시대의 역사서들은 산상왕과 우씨의 행적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비난의 내용은 둘의 사이가 불륜이라는 것과 우씨의 음란함에 집중된다. “그 행위가 개돼지만도 못하다”²⁸⁾, “한 몸으로 두 번이나 국모가 되었으니, 완악하고 음탕하고 부끄러움 없기가 고금 천하에 이 한 사람뿐이다”²⁹⁾, “짐승 같은 그 행실 참으로 추하구나”³⁰⁾ 등 원색적 표현들이 동원된 것을 보면 유교적 윤리와 강상에 비추어 볼 때 우씨는 다시는 역사에서 등장해서는 안 되는 여성 인물로 평가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가의 견지에서 보면 우씨는 여성으로서 성적 욕망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³¹⁾ 왕위계승을 조작해 신성한 왕권을 제멋대로 창출한 주동자이기 때문이다. 즉 두 가지 금기를 모두 어긴 사악한 여성이었던 것이다.³²⁾

27) 박용옥은 이에 대해 여자의 왕위 계승은 천고불변의 음양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나 비상 수단에 의한 왕위 계승은 상고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에 유교적 명분의 평가를 가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박용옥, 『三國史의 여성 기사 사론 분석』, 『연구논문집』 31, 성신여대, 1991, 21쪽.

28) <양촌선생문집> 제34권 동국사략론 중

29) 동국통감 권지3

30) <무명자집> 시고 제6책

31) 유교의 성별 욕망 담론에 대해서는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여이연, 2005, 336~354쪽; 김세서리아, 『동양 여성철학 에세이』, 랜덤하우스중앙, 2006, 114~126쪽을 참고하였다.

32) 권순형은 고려 시대에 섭정을 한 왕후 두 명 중 대표적 왕후인 목종의 모후 현에왕태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악녀’, ‘음녀’, ‘제거되어야 할 호족의 대표자’로 폄하되어

그런데 욕망을 부정하고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타인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든 삶을 능동적 자기 결정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든, 먼저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에 작용을 가할 수 있는 의지적 존재인 주체가 되어야 리더십 행동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리더십 형성의 선결조건은 ‘주체되기’인 것이다. 앞서 우씨에게 주체성의 문제는 욕망, 권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우씨의 내적인 힘은 권력-욕망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씨의 욕망의 성격이나 실현 방식, 권력 행사 양상 등이 과연 ‘리더’의 모습인가 라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제기된다.

리더십 이론에 의거하면 리더십과 리더의 패러다임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해왔다.³³⁾ 왕후 우씨의 리더십 방식은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전통적, 거러적, 남성적 리더십에 가깝다.³⁴⁾ 권위를 중시하고 보상과 처벌을 리더십의 방식으로 활용하며 타인을 권력으로 통제하거나 복종하게 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개념이 그러하듯이 리더십 역시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생성한다. 리더십 개념에 도덕성 여부를 도입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추세이다. 따라서 당대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우씨의 리더십이 혁신적이었을 수도 있다. 왜

온 것은 수백 년간 지속된 남성 중심의 윤리에 의해 그녀의 정치적 능력과 업적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권순형, 「고려시대 여성리더십 연구 : 경종비 현애 왕태후 황보씨를 중심으로」, 『2007년 중조한 국제여성학술회의 : 女性 연구의 발전로정과 시대적 과제』 200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7, 118~125쪽.) 이처럼 여성 정치 권력자의 정절을 문제 삼아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후 역사적 평가들은 여성을 공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윤리관에 의해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리더십과 리더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윤혜린, 앞의 책, 52~53쪽.

34) 최근에는 위계 관계를 전제로 한, 즉 지배와 종속의 수직적 관계를 상정하는 전통적 리더십보다는 그에 대한 대안 리더십 개념에 해당하는 변혁적 리더십, 여성 리더십, 감성 리더십 등이 바람직한 리더십으로 제시된다.

나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씨의 파격적인 일련의 행위는 운명과 상황을 돌파하는 주체적 행위자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고전 서사, 혹은 역사 속 여성 인물에 대한 리더십 연구는 신라의 여왕들, 섭정한 왕비들, 그리고 바리공주와 신사임당 등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우씨는 여왕이나 섭정한 왕비처럼 국정 전면에 나서서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았다.³⁵⁾ 다만 자신이 가진 권력을 바탕으로 친정 가문의 세력이 득세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대개 여왕의 리더십을 다루는 경우에는 정치적 역량과 지도자로서의 인품이 평가되고, 어린 왕을 대신해 섭정을 한 왕비의 경우에는 정치적 역량과 더불어 정치활동의 정당성이 논의된다. 섭정 왕비들의 정치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리더십은 찬탈의 염려 없이 어린 왕의 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라는 논리, 즉 모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우씨는 왕족도 아니고 섭정을 한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여받은 권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모성 리더십을 보여준 것도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 우씨를 리더십의 외연을 확장시킬 여성 인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흔히 여성 인물의 리더십을 논의할 때 공감능력과 포용력, 보살핌과 배려, 수평적 관계 중심과 자기희생 등의 방식이 추출되어 전통적 리더십에 대한 대안적 리더십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왕후 우씨의 경우 방금 언급한 여성적, 혹은 여성주의적 리더십 행동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욕망을 동력으로 권력을 창출해 이를 행사하는 여성 인물 우씨는 고전 서사에서 다양한 여성 인물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체가 되

35) 우씨가 얼마나 정치적 역량을 지녔는지, 실제 정치활동을 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삼국사기』 기록에 세 왕과의 관계에 대한 일화만 기술되어 있을 뿐이라 실제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한 것 같지는 않다.

어 삶을 꾸려나간 만큼 다양한 방식의 리더십 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처럼 왕후 우씨 서사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리더십 발현 양상과 성격은 ‘여성 리더십’이라는 다소 제한된 의미망을 확장시킬 하나의 예로 간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돌출된 지점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생명의 가치조차 목살하는 무자비함을 드러낸다거나 최고 권력을 가진 자에 기대되는 큰 포용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렇다. 이렇듯 왕후 우씨가 보여준 리더십의 의의와 한계는 리더십이 시대,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고 발현될 수 있다는 유연한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안에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반성적 시각을 요구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바 왕후 우씨는 친정 가문 세력에 의해 왕후가 되었지만 이후 일생 동안 자신의 권력 유지와 욕망의 실현, 자기 주도적 삶을 위해 스스로도 부단히 노력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우씨는 남편(고국천왕) 사후 왕후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취수훈의 일반적인 관습을 깨고 자신에게 가장 우호적인 시동생을 골라 왕으로 삼았고, 자신에게 자식이 없어 왕위 계승자가 없었지만 소후의 존재나 그녀의 임신을 부정하고자 함으로써 왕의 애정과 왕후로서의 권력을 독점하고자 했다. 또, 두 번의 태부 과정에서 관습과 기존 질서에 따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상대를 남편으로 인정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율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우씨의 성격은 그녀가 상황에 따라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항상 명료하게 인식함으로써 독립적인 주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체되기'의 방식으로 왕후 우씨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한 국가의 왕후라는 공적인 지위를 감안하면 공동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왕후 우씨가 보여준 개성적인 삶의 행적과 리더십의 발현 양상은 기존의 고전 서사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여성 리더십의 외연을 확대하는 일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동체를 위한 가치의 제시라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과연 그녀가 보여주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아쉬운 한계를 드러냈다. 왕후 우씨는 이처럼 리더십의 문제에 있어 다소 논쟁적인 인물이지만, 여성의 리더십 성격을 소위 여성적 특질의 발휘에 의한 문제 해결로 다소 한정해 온 기존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1996, 1~545쪽.

<동국통감> 권지3

<무명자집> 시고 제6책

<양촌선생문집> 제34권 동국사략론

권순형, 「고려시대 여성리더십 연구 : 경종비 현애왕태후 황보씨를 중심으로」,
『2007년 중조한 국제여성학술회의 : 女性 연구의 발전로정과 시대적 과제』
200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7, 101~125쪽.

김광수, 「고구려 초기의 왕위계승문제」, 『한국사연구』 55, 한국사연구회, 1986, 1~10쪽.

김세서리아, 「유가 경전에는 찾는 ‘유교적’ 여성주의 리더십」, 『동양철학연구』 69,
동양철학연구회, 2012, 69~92쪽.

김세서리아, 『동양 여성철학 에세이』, 랜덤하우스중앙, 2006, 1~207쪽.

김수태, 「2세기말 3세기대 고구려의 왕실혼인-취수혼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8, 한국고대사학회, 2005, 85~111쪽.

남홍석, 『유가와 서번트 리더십』, 동과서, 2014, 1~247쪽.

노태돈, 「고구려 초기 왕계에 대한 일고찰」, 『이기백 선생 고회기념논총(상)』, 1994,
1~982쪽.

노태돈, 「고구려 초기의 취수혼에 관한 일고찰」, 『김철준 박사 화갑기념사학논집』,
1983, 1~986쪽.

마리안 N. 루더만, 페트리샤 J. 오롯 지음, 구자숙, 서상태 옮김, 『21C 여성리더십』,
위즈덤아카데미, 2003, 1~337쪽.

박노석, 「고구려 초기 왕위 계승의 원리」, 『대동사학』 5, 대동사학회, 2005, 5~24쪽.

박대복, 「고구려 <우씨>의 여성영웅적 성격과 변이양상 연구-『삼국사기』, 「산상
왕본기」의 우씨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6, 중앙어문학회, 2013, 203~
232쪽.

박용옥, 「三國史의 여성 기사 사론 분석」, 『연구논문집』 31, 성신여대, 1991, 21~
51쪽.

신경득, 「고구려 초기 형수와의 혼인이 빚어낸 갈등 양상」, 『남명학연구』 26, 경상

- 대 남명학연구소, 2008, 479~517쪽.
- 엄광용, 「고구려 산상왕의 '취수혼 사건」, 『사학지』 38, 단국사학회, 2006, 5~40쪽.
- 윤상열, 「고구려 왕후 우씨에 대하여」, 『역사와 실학』 32, 역사실학회, 2007, 217~245쪽.
- 윤혜린, 『여성 리더십의 공간과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9, 1~254쪽.
- 이기백, 「고구려 왕비죽고」, 『진단학보』 20, 진단학회, 1959, 79~97쪽.
- 이대범 외, 『인문학 리더십코칭』, 강원대학교 출판부, 2010, 1~201쪽.
-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여이연, 2005, 1~516쪽.
- 자크 랑시에르 지음,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11, 1~322쪽.
- 전미희, 「고구려 초기의 왕실교체와 5부」, 『박영석 박사 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상)』, 1992, 1~1208쪽.
- 정상균, 「<산상왕 본기>의 서사문학적 의미 연구」, 『연민학지』 8, 연민학회, 2000, 25~61쪽.
- 조태영, 이동근, 「역사이야기 서술의 두 형식」, 『고전문학연구』 6, 한국 고전문화회, 1991, 281~323쪽.
- 조형 엮음,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 리더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1~172쪽.
- 최일례, 「산상왕의 혼인과 고구려의 정치-나부세력의 동향을 중심으로」, 『역사학 연구』 58, 호남사학회, 2015, 1~32쪽.

ABSTRACT

Self reliance and leadership in narration
of Queen Woo in Koguryeo Dynasty

Chung, Kyung-min

Queen Woo in Koguryeo dynasty maintained the position of queen for 2 generation and passed away as queen as well. Since description of Samguksagi and Koguryu boni possess historical record as well as aspect of narration, this thesis analyses Queen Woo as the case of characteristic leadership by viewing the story of Queen Woo as one of the narrative text.

Queen Woo had always taken the lead in relationship with others by flexible and nimble manner in accordance with situation in reaching her own goal of maintenance of power, monopoly of love and self-regulated life. And she was able to develop independency internally through clear self recognition. This effort on self-reliance became a cornerstone of leadership of queen Woo.

Evaluation against queen Woo by later generation was pretty negative. However, a series of preposterous actions can be interpreted by viewpoint of independent doer as challenge of destiny and given circumstances. Moreover,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leadership based on mother's instinctive love were frequently sampled as women leadership, this story is regarded as the case of external extension of women leadership. On the other hand, there is limitation of her leadership in proposing value for community.

Key Words Queen Woo in Koryoe Dynasty, Women leadership, Self reliance, Power, Desire, Autonomous life

논문투고일 : 2016.10.15
심사완료일 : 2016.11. 2
게재확정일 : 2016.11.15